

가정 예배 모범

- 2022_09_11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9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계속 침투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에베소서 5장 1~ 7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세상에 보여주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갑시다.

2)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3~4절)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성도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같은 죄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추악한 모든 것을, 그리고 탐욕은 단순한 욕심 이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러한 악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 된 언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